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들이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 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동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협의회는 5개 광역권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대표 등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동남권신공항' 함께 띄우자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연합

분기별로 5개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향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계의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는 등 각 권역별 시·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정책 결정을 촉구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특히 신공항 건설이 확정될 때까지 입지문제 등에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 광역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들이 27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협의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

시·도 지자체와 의회, 경제계 대표들의 공동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해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 폐해를 바로 잡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남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